

2013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 논술고사(인문계)

※ 주의사항(인문, 경상, 자연 공통사항)

- ① 답안지에 제목과 소재목을 달지 마시오.
- ②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마시오.
- ③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하시오.
- ④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 ⑤ **연필 또는 흑색필기구**만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시오(그 이외 색 필기구는 부정행위에 해당).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요지를 쓰고, 그 중 하나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800 ± 80자, 40점)

(가) 15~18세기에 사람들이 먹는 기본음식은 주로 식물성 음식이었다. 이것은 콜럼버스 발견 이전의 아메리카나 블랙 아프리카에서는 자명한 진리였으며, 벼를 재배하는 아시아 문명권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물론 현재에도 명백한 사실이다. 극동지방에서 일찍이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된 것도 육식을 아주 조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단지 칼로리 수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결정을 한다면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목축보다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곡물 경작은 목축보다도 10~20배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벼를 재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는 동물을 먹이는 데 쓰이는 땅이 여기에서는 직접 사람을 먹이는데 쓰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식물성 음식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15~18세기만의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있는 일이다. 곡물이나 고기나 선택은 인구수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물질문명의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나) Today's neighborhood barbecue recreates a world of sharing and hospitality that becomes rarer each year. We regard as a curiosity the behavior of hunters in exotic regions. But every year millions of North Americans take to the woods and lakes to kill a wide variety of animals — with a difference, of course: What hunters do for survival we do for sport (and also for proof of masculinity, for male bonding, and for various psychological rewards). Like hunters, too, we stuff ourselves almost whenever food is available. Nibbling on a roasted ear of maize gives us, in addition to nutrients,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in culturally simpler ways. A festive meal, however, is still thought of in Victorian terms, with the dominant male officiating over the roast, the dominant female apportioning vegetables, the extended family gathered around the table, with everything in its proper place — a revered picture, as indeed it was so painted by Norman Rockwell, yet one that becomes less accurate with each year that passes.

(다) 부자들의 부엌에서는 모든 요리가, 때로는 음료까지도 양념의 첨가로 더욱 고급화되었다. 예를 들면 계피 맛이 나는 달콤한 양념 포도주인 ‘히포크라스’가 있었다. 그런데 후추, 육두구 열매, 정향, 계피 등의 과다한 양념 사용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음식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래서 후추가 식사를 하는 사람의 점막을 더 강하게 자극할수록 주인에 대한 존경이 더 높아진다는 볼프강 슈펠부쉬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것일지언정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회적 그룹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거나 그 음식이 구하기 쉬워지고 가격이 내려가면 그 음식은 즉각 매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경계를 긋는 특징물이 되지 못한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의 엘리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구별될 만큼 아주 간단한 양념과 요리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되돌아가서 심지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던 그런 ‘새로운’ 음식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콩과 식물, 내장, 순대, 야생마늘 수프, 곡물가루 푸딩 등이 그것으로 아주 훌륭한 식당에서 다시 최고급 요리로 등장하고 있다.

(라)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교에서도 건강한 먹을거리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라를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슬림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음식의 절제에 대한 이슬람교의 입장을 가장 잘 표명한 것이 무슬림의 5대 의무 사항 중 하나인 라마단이다. 라마단 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달 동안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식을 통해 무슬림은 절제력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다. 먹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인 만큼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에게 허용된 음식을 할랄, 금지되는 음식을 하람, 그리고 권장되

지 않는 음식을 마크루라고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 의무사항으로 간주된다. 구란 제 5장 3 절에는 무슬림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즉 하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람 음식에는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잡은 고기가 아닌 것, 교살된 것과 때려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야생의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쳤던 것과 화살에 점성을 걸고 잡은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금지된 음식이더라도 기아의 상태에서 생명이 위험할 때, 목숨을 구할 때, 또는 무의식중에 먹었을 때는 허용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

<문제 1 해설>

▶출제의도

일반적으로 음식은 너무나 친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여긴다. 인간이 생명체로서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 섭취하는 당연한 욕구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매순간 마시는 공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것 그 자체이다(Der Mensch ist was er ißt)”라는 독일속담처럼, 한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에는 그 인간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요구사항은 음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제시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이 선택한 지문의 논지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사고력,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지를 보충할 수 있는 응용력 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의 개요

제시문 (가)는, 거칠게 요약하면, 음식이 지닌 경제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주로 기호의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선택이 그 사회의 인구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수에 의해 그 선택이 좌우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경제적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구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증가한 사회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사회구성원이 식물성음식에 크게 의존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똑같은 면적의 땅에서는 목축보다 곡물 재배가 보다 월등히 높은 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므로 (가)는 음식과 인구증가와의 경제적 인과관계를 논하고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는 보다 의미심장한 전제가 깔려있다. 즉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또는 역사의 기본구조인) 물질문명, 내지 물질생활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식이라는 것과 어떤 문명이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가 그 문명의 기본적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깔고, 자신의 논지를 펴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유럽처럼 일찍부터 고기를 주식으로 선택했다면, 그에 따라 유럽의 농업구조—목축과 곡물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농업구조—가 결정되고, 적어도 하층민의 곡물소비량이 늘고 고기소비량이 크게 감소되어야만 인구가 증가하는 등등의 역사적 특징(예컨대 서유럽에서는 16세기 중반부터 육류소비의 제약이 뚜렷해진다)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 곡물이나 고기나 선택이 그런 선택을 한 특정문명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먹는 것을 나에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리라.”는 말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는 곧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를 둘러싼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제시문 (나)는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서 먹는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인류학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3년생 내지 졸업생이 해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영어문장이지만, 음식문화가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음식문화 그 자체가 변화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과거의 사냥꾼이 생존을 위해 사냥했다면 오늘날의 사냥은 주로 스포츠, 남성다움의 과시, 남성끼리의 결속감의 확인, 그리고 심리적 보상을 위해서이고, 또 이웃끼리 바비큐를 해먹는 것은 나눔과 친근한 인간관계를 재창조하는 문화적 행위이고, 또 명절날 온 가족이 잘 차려놓은 식탁의 정해진 자리에 둘러 앉아 남자 어른(아버지)이 고기를 나누어주고, 여자어른(어머니)이 야채를 나누어주는 식사예절은 빅토리아식(=전통적 내지 가부장적) 가족관계의 확인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행위들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습이 점점 줄어들고 희귀해져가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음식문화를 통해 서양(특히 미국)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동시에 짚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과거가 공동체 지향적이었다면 현대는 이전에 비해 훨씬 개인적인 사회가 되었음을 음식문화의 변화가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어떤 음식 내지 음식문화가 한 사회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시문 (다)는 음식이 지닌 구별 짓기 기능, 즉 사회적으로 경계선 긋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음식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 다른 집단과 자신의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상류계층은 자신들이 즐기는 음식을 보통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면, 바로 다른 음식을 찾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던 귀한 음식이 마침내 일반 대중에게 도달했을 때 갑자기 그 소비량이 폭증한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식욕이 폭발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일단 대중화하고(“명예의 상실”과 “확산”이라는 이중의 뜻에서)나면 이 음식은 곧 매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일종의 포만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언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고, 이를 조금 확대해석하면, 음식을 둘러싸고도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셈이다. 여하튼 상류층들은 자신들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며, 요즘에는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즐기던 음식마저 선택하는 경향까지 보인다.

제시문 (라)는 음식과 종교의 관련성을 살피고 있는 글이다. 단적으로,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먹는 것은 순전히 종교적 행위이다.” (향후 20년 내에 전 세계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슬림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려면 이슬람종교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때때로 종교는 사람들이 음식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금식이 좋은 예인데, 구체적으로 기독교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사순절에 대구를 먹음으로써 “유럽에서 가장 수치맞는 일은 대구잡이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대구소비량이 늘었다. 아울러, 종교와 음식의 관련성은 그 사회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시문은 이슬람을 예로 들어, 음식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 음식 종류의 선택 등에 미치는 종교의 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종교와 음식의 관련성의 예를 우리사회에서 찾아내는 수험생들의 능력이 (라)를 선택한 수험생의 답안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것이다.

▶ 평가 항목

독해력(40%)	제시문 네 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통합적 사고력과 응용력(40%)	제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예를 찾아내어, 제시문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구성 및 표현력(20%)	글의 유기적 구성, 정확한 문장 표현, 적절한 분량, 맞춤법 및 원고지 사용법

문제2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해 요약하고, 이러한 입장들을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한국의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000 ± 100자, 60점)

(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세금은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 다 피할 수 없지만 결코 반가운 대상들은 아니다.

정치체제가 형성된 이후 세금은 시대마다 이름이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항상 존재해 왔다. 세금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그 속성상 정치 공동체가 물리력을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랄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중세 영국의 로빈 후드(Robin Hood) 이야기는 세금 징수의 악랄적 성격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가렴주구나 혈세라는 표현 속에도 세금의 악랄적 성격이 담겨 있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에도 세금 문제는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다.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 때문에 170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또한 영국 정부의 차 세(Tea Act) 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은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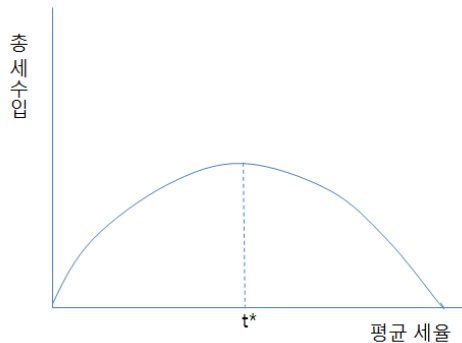
(나) 저는 진심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적극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시각을 좀 바꾸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국민이 각자 시장에서 따로 사던 물건을 국가가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증세를 통한 복지 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소비 방식을 바꾸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구매,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공구’로 보면 증세를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약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기관이 직접 제약회사와 협상해서 구입하는 편이 훨씬 쌀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꺼번에 많은 의약품을 사는 만큼 당연히 값을 깎자고 요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등에 업고 있으니 협상력도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는 약품이나 의료만이 아니라 교육, 노인 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내 돈 가져가서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금이 병원이고, 세금이 연금이고, 세금이 학교입니다. 세금과 복지 예산의 증가는 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구입하던 걸 공동 구매로 바꾼 겁니다.

저는 심지어 조세부담이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담이 아니거든요.

(다) 래퍼곡선



공급측면 경제학은 조세측면에서 근로 및 자본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근로의욕, 투자의욕을 해쳐 생산과 소득이 줄어든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실제임금과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사이에 격차가 커진다. 이는 임금인상 요구의 원인이 되므로 기업은 고용을 그만큼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근로자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투자의욕이 저해된다. 따라서 세금이 과중한 경제에서 세율을 낮추면 동기유발을 통해 생산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율이 0으로부터 점차 올라가면 일정한 도 내에서는 세수도 증가하지만, 세율이 t^* 이상으로 오르면 오히려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해쳐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의 함수인 세수도 줄어든다. 따라서 그림에서 세율이 t^* 이상이 되는 경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따라서 세율이 t^* 이상인 영역을 금지영역이라고 하며, 이 곡선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래퍼곡선(Laffer curve)라고 부른다.

(라) 한국의 복지지출비중과 조세부담률 자료

<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 (2005)

	공적복지지출	국민부담률
스웨덴	27.3	51.1
덴마크	24.1	49.7
독일	28.1	34.7
프랑스	30.4	44.3
영국	22.9	37.2
미국	18.4	26.8
한국	8.0	25.6
OECD 평균	20.8	35.9

<문제 2 해설>

▶출제의도

한국 사회에서 저 출산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출 증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정부 지출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필수적으로 조세의 증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조세 증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수용적이지 않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예컨대, 18세기 말 국민총생산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영국 22%, 프랑스가 10%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국국민이 자국정부에 비교적 만족해하고, 프랑스에서는 조세에 대한 불만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면,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증세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주어진 자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더불어 적절한 해석능력을 평가하자는 것이 문제2의 출제의도라 할 수 있다.

▶지문들의 요점

- 지문(가): 과거 봉건시대나 독재정권의 시기에 조세는 권력자들의 일반 국민에 대한 수탈 또는 착취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세에 대해 저항적이었고 가급적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다. 지문 (가)는 이러한 조세의 수탈적 성격과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는 지문이다.

- 지문(나): 현대 민주 복지국가에서 조세는 과거와 달리 국민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정부 서비스 또는 복지를 구매하기 위한 일종의 공동구매적 성격을 가진다. 조세가 이러한 성격을 가질 경우 정부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국민들은 적절한 수준의 조세 인상에 합의할 수 있다. 지문 (나)는 이러한 조세의 공동구매적 성격과 국민들의 조세 인상에 대한 합의를 보여주는 지문이다.

- 지문(다): 래퍼 곡선은 적절한 수준의 세율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곡선이다. 래퍼 곡선에서 제시된 것처럼, 적정 수준 t^* 를 넘어선 과도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해외이전이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저하 그리고 지하경제 확대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총세입은 줄어들 수 있다. 즉 지문 (다)는 과도한 세율은 곤란하고 적절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 지문(라): 이 표는 주요국들의 GDP 대비 사회지출의 비율과 GDP 대비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료)을 보여준다. 이 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지출의 비율과 국민부담률 모두 아주 낮은 상황이다. 즉 지문 (라)는 우리나라는 아직은 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 모두 낮은 상황이어서 증세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채점기준

아주 높은 점수	한국에서 증세를 둘러싼 미래 방향에 대해, (가), (나), (다) 의 요지들을 잘 활용하면서 종합적으로 한국에서 증세를 둘러싼 미래 방향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
약간 높은 점수	한국에서 증세를 둘러싼 미래 방향에 대해, (가), (나), (다) 의 요지 중 한가지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
약간 낮은 점수	지문 (가), (나), (다)의 각 각 요지는 잘 파악한 후, 지문 (라)의 표를 이용하여 한국의 증세의 가능성과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한 경우
아주 낮은 점수	지문 (가), (나), (다)의 각 각 요지만 잘 파악한 경우

<끝>